

갈라디아서에 드러난 바울의 묵시적 복음

J. 루이스 마틴의 주장에 대한 재고찰

김두석*

1. 들어가며

20세기 초 슈바이처(A. Schweitzer)의 『사도바울의 신비주의』 이후 묵시 사상은 바울을 이해하는 중요한 해석학적 방법론으로 자리잡았다.¹⁾ 이와 같은 바울의 해석 사조는 케제만(E. Käsemann), 베커(J. C. Beker), 드 보어(M. C. de Boer), 가벤타(B. R. Gaventa), 캠벨(D. A. Campbell)에 의하여 발전해왔다.²⁾ 그 중에서도 루이스 마틴(J. Louis Martyn)의 연구는 많은

* 광신대학교 조교수, 신약학. 본 논문은 필자의 학위 논문 “The Intertextuality of Paul’s Apocalyptic Discourse”의 일부를 발전, 추가하여 작성되었다. 갈라디아서 본문을 분석한 부분은 학위 논문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전체적인 논지와 주제는 새롭게 구성하였다.

- 1) A. Schweitzer, *Die Mystik des Apostels Paulus* (Tübingen: J.C.B. Mohr). 영어번역본은 *The Mysticism of Paul the Apostle*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8); 한글번역본은 『사도바울의 신비주의』, 조남홍 역 (서울: 한들, 2012)을 참고하라. 매튜 티센은 바울을 해석하는 네 가지 해석 사조로 루터의 해석, 새관점, 유대교 안의 바울, 그리고 묵시적 바울을 제안한다. M. Thiessen, *A Jewish Paul: The Messiah’s Herald to the Gentiels* (Grand Rapids: Beker, 2023), 1-10.
- 2) J. C. Beker, *Paul’s Apocalyptic Gospel: The Coming Triumph of God* (Philadelphia, PA: Fortress, 1982); M. C. De Boer, *The Defeat of Death: Apocalyptic Eschatology in 1 Corinthians 15 and Romans 5*, JSNTSup 22 (Sheffield: JSOT, 1988); idem, *Galatians: A Comment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11); D. A. Campbell, *The Deliverance of God: An Apocalyptic Rereading of Justification in Paul* (Grand Rapids: Eerdmans, 2009); B. R. Gaventa, “The Singularity of the Gospel: A Reading of Galatians,” *Pauline Theology*, ed. M. B. Jouette (Minneapolis: Fortress, 1991), 147-159; B. R. Gaventa, “The Maternity of Paul: An Exegetical

학자들에 의해 회자된다.³⁾ 이들의 공통점은 바울의 묵시사상을 유대주의의 틀에서 해석한다는 것이다. 유대주의 묵시사상은 시간적 이중구조인 이 세대와 오는 세대의 분리와 공간적 이중구조인 지상과 천상의 분리의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보인다.⁴⁾ 특히 유대주의 묵시사상에서 ‘두 세대 이론’에 의하면

Study of Galatians 4:19,” *Conversation Continues: Studies in Paul and John in Honor of J. Louis Martyn*, eds. R. T. Fortna and B. R. Gaventa (Nashville: Abingdon, 1990), 189–201.

- 3) J. Louis Martyn, “Apocalyptic Antinomies in Paul’s Letter to the Galatians,” *NTS* 31/3 (1985), 410–424; J. Louis Martyn, *Galatian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New York: Doubleday, 1997); idem, “The Covenants of Hagar and Sarah: Two Covenants and Two Gentile Missions,” *Theological Issues in the Letters of Paul* (Nashville: Abingdon, 1997), 191–208; idem, “A Law-Observant Mission to Gentiles,” *The Galatians Debate*, ed. M. D. Nanos (Peabody: Hendrickson, 2002), 348–361
- 4) V. Philippi, “Introduction to Apocalypse and Related Subject,” *New Testament Apocrypha*, trans. R. McL. Wilson, ed. S. Wilhelm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1991, 549); 박정수, 『고대 유대교의 타·무너: 친구와 중간사와 기독교의 기원 탐구』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323–24. 유대주의 묵시사상에 관한 연구는 D. S. Russell, *The Method and Message of Jewish Apocalyptic, 200 BC-AD 100* (London: SCM, 1964), 263–284; A. J. Ferch, “The Two Aeons and the Messiah in Pseudo-Philo, 4 Ezra, and 2 Baruch,” *AUSS* 15/2 (1977), 135–151; P. D. Hanson, *The Dawn of Apocalyptic: The Historical and Sociological Roots of Jewish Apocalyptic Eschatology* (Philadelphia: Fortress, 1979), 1–11; J. P. Vielhauer, “Apocalyptic in Early Christianity,” *Writings Relating to the Apostle: Apocalypses and Related Subjects*, vol. 2 of *New Testament Apocrypha*, ed. W. Schneemelcher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1991), 569–638; J. J. Collins, *The Apocalyptic Imagination: An Introduction to Jewish Apocalyptic Literature*. 2nd ed. (Grand Rapids: Eerdmans, 1998); G. Macaskill, *Revealed Wisdom and Inaugurated Eschatology in Ancient Judaism and Early Christianity*, *JSJSup* 115 (Leiden: Brill, 2007), 33, 70; A. L. A. Hogeterp, *Expectations of the End: A Comparative Tradition-Historical Study of Eschatological, Apocalyptic and Messianic Ideas in the Dead Sea Scrolls and the New Testament*, *STDJ* 83 (Leiden: Brill, 2009), 19–113; R. Hays, “Apocalyptic Poiesis in Galatians: paternity, passion, and participation,” *Galatians and Christian Theology: Justification, the Gospel, and Ethics in Paul’s Letter*, eds. W. E. Mark, et al. (Grand Rapids: Baker, 2014), 203; J. P. Davies, *Paul Among the Apocalypses? An Evaluation of the “Apocalyptic Paul” in the Context of Jewish and Christian*

이 세대(this age)는 악하고 오는 세대(the age to come)는 회복과 구원을 가져다 주는 새로운 세대이다. 도래할 세대는 현 세대의 악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연다. 오는 세대에 의인은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는 반면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은 메시아의 오심과 심판에서부터 시작된다. 물론 이같은 엄격한 이원론적 구도에 비판을 가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갈라디아서를 해석하는데 두 세대 이론은 여전히 적절한 방식으로 인정되고 있다.⁵⁾

본 논문은 마틴이 그의 갈라디아서 연구에서 제안한 바울의 묵시사상을 재고찰한다. 비록 본고가 마틴의 선행연구에 빛을 지고 있을지라도 두 가지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먼저, 마틴의 주장과 갈라디아서의 묵시적 관점에 대한 요약과 비평이 국내에는 글로 소개되지 않았다.⁶⁾

Apocalyptic Literature, LNTS 562 (London: T&T Clark, 2016), 96-106; M. F. Bird, *An Anomalous Jew: Paul Among Jews, Greeks, and Romans* (Grand Rapids: Eerdmans, 2016), 121-123; M. J. Gorman, "The Apocalyptic New Covenant and the Shape of Life in the Spirit according to Galatians," *Paul and the Apocalyptic Imagination*, eds. C. B. Ben, K. G. John, and M. Jason (Minneapolis: Fortress, 2016), 317-337; C. S. Keener, *Galatians: A Commentary* (Grand Rapids: Baker, 2019); D. Jamie, *The Apocalyptic Paul: Retrospect and Prospect* (Eugene: Cascade Books, 2022)를 참고하라.

- 5) 유대주의가 엄격한 이분법적 세대 구분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제안은 J. J. Collins, "Cosmos and Salvation: Jewish Wisdom and Apocalyptic in the Hellenistic Age," *HR* 17/2 (1997), 142; C. Rowland, *The Open Heaven: A Study of Apocalyptic in Judaism and Early Christianity* (London: SPCK, 1982), 14-30; L. T. Stuckenbruck, "Posturing Apocalyptic in Pauline Theology: How Much Contrast with Jewish Tradition?" *The Myth of Rebellious Angels: Studies in Second Temple Judaism and New Testament Texts*, WUNT 335, L. T. Stuckenbruck ed. (Tübingen: Mohr Siebeck, 2014), 240-256; L. T. Stuckenbruck, "Overlapping Ages at Qumran and Apocalyptic in Pauline Theology," *The Dead Sea Scrolls and Pauline Literature*, STDJ 102, J.-S. Rey ed. (Leiden: Brill, 2014), 240-56; E. Wasserman, *Apocalypse as Holy War: Divine Politics and Polemics in the Letters of Paul*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8), 11-57을 참고하라.
- 6) 갈라디아서에 관한 한국 연구자들의 연구물들은 끊임없이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학술지 인용색인(<https://www.kci.go.kr/kciportal/main.kci>)에서 갈라디아서, 루이스 마틴, 묵

국내의 학자들 역시 본 논문이 제기하는 문제의식을 잘 알고 있지만 마틴의 연구에 대한 평가와 재고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본 논문은 국내 독자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분석 방법론의 측면에서 필자는 갈라디아서에서 발견되는 언어적 특징과 의미적 패턴 분석을 통하여 마틴의 주장에 도전하며 갈라디아서의 묵시적 관점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의미적 패턴 분석은 먼저 구문을 형성하는 구성요소가 어떻게 연결되며 의미를 창출하는지 분석하고 다음으로 동일한 의미적 연결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어떻게 반복되는지 살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유대주의 묵시문헌에서 발견될 수 있는 단어와 표현들의 단순비교에 그치지 않고, 바울이 그와 같은 의미항목을 구문 안에서 어떻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지를 통해 바울이 전달하는 의미를 제안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마틴을 위시한 많은 학자들이 바르게 판단한 것처럼 갈라디아서가 시대(age)의 전환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유대주의적 묵시문헌의 전통을 보인다. 하지만 유대주의 묵시사상과 다르게 갈라디아서는 현재 시대와 미래 시대의 단절이나 미래적 소망이 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⁷⁾ 오히려 바울은 이전 시대(the past age)에서 현시대(the present age)의 전환에 주목한다. 그 이유는 바울에게 새로운 시대는 그리스도 사건을 통하여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며 새로운 시대를 현시대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시대의 전환 사건이다.

둘째, 바울과 대적자의 갈등은 두 가지 선교 방식, 즉 율법의 준수를 가르치는 이방인 선교와 율법 없는 이방인 선교를 암시한다는 마틴의 주장은 통찰력

시적 바울, 유대주의 묵시사상과 같은 키워드 검색을 통해 검색한 결과 본 논문이 제시하는 주제에 관한 마틴의 주장을 요약 및 비평하여 새로운 관점을 제안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

- 7) 갈라디아서의 묵시적 종말론에 관한 논의의 대부분이 실현된 종말론을 주장한다. 하지만 소수의 학자들이 미래적 종말론을 주장하는데 그 가운데 한국의 권연경이 대표적인 학자이다. Yon-Gyong Kwon, *Eschatology in Galatians: Rethinking Paul's Response to the Crisis in Galatia*, WUNT 183 (Tübingen: Mohr Siebeck, 2004)을 참고하라.

이 있다.⁸⁾ 다시 말해서 바울은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선교방식과 투쟁하고 있다는 것이다.⁹⁾ 하지만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갈라디아서 4장의 사라-하갈 알레고리를 근거로 제시하는 마틴의 주장은 적절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라-하갈 알레고리를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두 개의 다른 언약과 인간의 두 가지 상태(율법 아래 있는 것과 믿음 안에 있는 것, 종과 자유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같은 언약 안에 두 개의 다른 방식을 대조하기 보다 두 개의 상이한 언약을 설명하고 있다. 더욱이 갈라디아서 전반에 걸쳐 바울의 언어적 표현과 대조의 반복은 두 가지 다른 선교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듯하다.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 저주를 선포한다 (1:7, 8). 바울에게 그들은 진리 가운데 있지 않는 자들이다 (2:14). 바울은 대적자들이 전한 복음과 그들의 선교방식은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즉, 바울에게 두 개의 선교방식은 양립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셋째, 마틴은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언약과 별개로 인류의 역사 안에 침투(invasion)하신 구원의 방식으로 제안한다. 하지만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의 묵시적 복음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토대 위에서 설명한다. 즉,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이 그리스

-
- 8) Martyn, *Galatians*, 431-66. 마틴은 바울의 이방인을 위한 복음전파 방식과 가르침에 주목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두 가지 형태의 선교를 제안한다. 야고보로부터 온 자들은 동일한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이방인을 향한 전략은 ‘유대화(judaizing)하기’ 혹은 ‘유대인으로 만들기’인 반면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사도이기 때문에 율법과 상관 없는 선교전략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적어도 바울의 대적자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아님을 인식했다는 측면에서는 마틴의 주장은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최근 유대교 안의 바울에 속한 다수의 학자들은 마틴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한다. 그들에 의하면 바울은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방식으로 이방인을 향해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했다는 것이다. P. Freriksen, “Judaizing the Nations: The Ritual Demands of Paul’s Gospel,” *NTS* 56 (2010), 232-252; P. Eisenbaum, *Paul Was Not a Christian: The Original Message of a Misunderstood Apostle* (New York: HarperOne, 2009), 200-209.
- 9)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율법 준수를 강요하는 자들과 싸우며 자신의 복음을 변호하고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바울의 대적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이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2:12).

도의 계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구원의 비밀이 계시되었기 때문이다.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이방인만을 위한 *Sonderweg*도 아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가 감추어져있던 시대에서 명확히 드러나는(*ἀποκάλυψις*) 시대로의 전환을 알리는 것이다.

2. 마틴의 제안 재고찰하기

2.1. 바울이 이야기하는 두 가지 시간: 그때와 지금

마틴은 갈라디아서에는 천사의 등장, 천상으로 여행, 비전과 환상, 부활, 악의 기원과 같은 묵시문학적 요소가 등장하지 않지만 이 세대와 오는 세대의 분리인 이원론적 세계관이 갈라디아서의 묵시사상의 핵심이라고 설명한다.¹⁰⁾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의 도래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되었으며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의 역사에 침투하셔서 자유와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사역이라고 주장한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오다”라는 단어와 “계시하다”라는 단어를 상호교환적으로 사용하며(3:23) 이와 같은 언어적 요소는 구원이 인류의 역사 밖으로부터 들어왔다는 중요한 사실을 시사한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바울의 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다.¹¹⁾

특히, 마틴은 ‘이 악한 세상’(1:4), ‘때가 차매’(4:4), ‘새로운 피조물’(6:15)

10) Martyn, *Galatians*, 105.

11) Martyn, *Galatians*, 407.

과 같은 용어들이 바울의 묵시적 종말론을 가리키는 중요한 표현이라고 주장한다.¹²⁾ 마틴에 의하면 “갈라디아서 1:4의 ‘이 악한 세대’라는 표현은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을 묵시적 종말의 틀로 전환하고 있는 중요한 단서”이다.¹³⁾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의 진술이 유대주의 묵시적 종말론과 유사하다는 것에 이견을 제시하는 학자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몇 개의 단어들을 통하여 바울이 유대주의적 묵시사상의 틀로 서신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다. 왜냐하면 ‘이 악한 세대’라는 표현은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1장 4절에만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대’와 ‘오는 세대’라는 용어 대신 바울은 ‘그때’와 ‘지금’이라는 시간의 대조를 갈라디아서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그의 묵시적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은 시간의 대조를 통해 바울은 앞으로 도래할 시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도래한 현재에 관심을 둔다. 다시 말해서, 유대주의 묵시사상은 현재로부터 미래의 시대전환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바울은 과거로부터 현재의 전환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유대주의 묵시사상이 이야기하는 미래적 사건이 이미 현재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유대주의 묵시사상이 ‘이 세대’와 ‘오는 세대’의 단절을 강조한 반면, 바울은 새로운 시대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세대’에 중첩되어 있음을 설명한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ποτέ*, *νῦν*, *τότε*, *οὐκέτι*와 같은 부사와 *ὅτε*, *ἀλλά*와 같은 접속사 그리고 *πρό*, *ἄχρι*와 같은 전치사를 활용하여 ‘그때’와 ‘지금’이라는 시간의 전환을 표현한다.¹⁴⁾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시간의 전환에 중심축이 된다. 더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설명하는 시간의 전환은 유대주의 종말론이 나타내는 이 세대와 오는 세대 즉 현재로부터 미래를 향한 시간의 전환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현재의 시간의 전환을 드러낸다.

이와 같은 시간의 전환은 갈 3:15-25에서 율법과 복음 그리고 율법과 믿음의 대조로 구체화된다. 이 구절에서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

12) Martyn, “Apocalyptic Antinomies,” 412.

13) Martyn, *Galatians*, 91.

14) A. Despotis, “Reconsidering the Pauline Conception of Time,” *JSPL* 8/1 (2018), 29-30.

ἄχρι와 부사 οὐκέτι는 율법과 오실 후손 그리스도의 대조를 암시한다(3:19, 25).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며 그 효력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로 제한된다. 바울에게 율법은 그 자체로 악하거나 하나님의 언약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율법은 그 효력에 있어서 시대적 제한이 있다.¹⁵⁾ 바울은 전치사 ἄχρι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기까지 율법의 잠정적인 역할을 부각시킨다.¹⁶⁾

더욱이 갈 3:23-25에서 율법과 믿음은 두 개의 시대를 대표한다.

- 23 Πρὸ τοῦ δὲ ἐλθεῖν τὴν πίστιν
 ὑπὸ νόμον ἐφρουρούμεθα
 συγκλειόμενοι
 εἰς τὴν μέλλουσαν πίστιν
 ἀποκαλυφθῆναι,
 24 ὥστε ὁ νόμος παιδαγωγὸς ἡμῶν γέγονεν εἰς Χριστὸν,
 ἵνα ἐκ πίστεως δικαιωθῶμεν,
 25 ἐλθούσης δὲ τῆς πίστεως
 οὐκέτι ὑπὸ παιδαγωγὸν ἐσμεν.¹⁷⁾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믿음이 와서 드러날 때까지 율법에 간혀 사로잡혀 있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게하기 위하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이끄는 초등교사가 된 것처럼 믿음이 옴으로 우리는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¹⁸⁾

위의 구문분석에서 보듯이 23절의 본동사 ἐφρουρούμεθα의 주어인 일인칭 복수 ‘우리’와 부가어 ‘율법(ὑπὸ νόμον),’ 분사절의 주어 역할을 하는

15) De Boer, *Galatians*, 235-36; F. F. Bruce,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Grand Rapids: Eerdmans, 1982), 180.

16) D. J. Moo, *Galatians* (Grand Rapids: Baker, 2013), 242.

17) 가독성을 위하여 헬라어를 절(Clause)단위로 분해하여 기입하였다. 헬라어는 UBS 4판에서 인용하였다.

18) 헬라어 번역은 저자의 것이다.

‘믿음(τὴν πίστιν)’은 의미적 연결을 보인다. 바울은 믿음이 오기 전(πρό)까지 율법 아래(ὑπό)에 매인 상태를 이야기한다. 주목할 점은 믿음의 도래가 율법에 매인 상태에서 자유로운 상태로의 전환의 시작을 암시한다는 것이다. 23절에 등장하는 분사와 부정사는 이것을 보충하여 설명한다. 믿음의 도래는 (εἰς τὴν μέλλουσαν πίστιν) 갇혀 있는(συγκλειόμενοι) 상태에 변화를 일으킨다. 전치사 εἰς 역시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을 연상하게 한다는 점에서 두 개의 다른 상태를 대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⁹⁾ 24절과 25절에도 두 가지 상태에 대한 대조가 나타난다. 율법은 초등교사로서 믿음이 오기 전까지만 그의 소임을 다한다. 믿음이 온 이후에는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 이와 같이 바울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와 전치사와 함께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믿음과 율법을 두 개의 시대로 표현하며, 그 두 시대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점으로 나뉜다.²⁰⁾

갈라디아서 4:1-11도 ‘그때’와 ‘지금’의 시대적 구분이 ‘후손(heir)’과 ‘종(slave)’의 대조가 나타난다. 여기에서도 그리스도는 전환의 중심축이 되며 바울은 이를 시간적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와 평행구조를 통하여 적절하게 드러낸다. 먼저 바울은 갈 4:1-2에서 유비를 통하여 설명한다. 유업을 이을 자가 어렸을 때는 종과 같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ὑπὸ ἐπιτρόπους ἐστὶν καὶ οἰκονόμους)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ἄχρι) 있다. 동일한 평행구조가 갈 4:3-5에 나타난다. 어렸을 때는(ὅτε ἤμεν νήπιοι)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 노릇을 하였지만, 아버지가 정한 때가 이르니(ὅτε δὲ ἦλθεν τὸ πλήρωμα τοῦ χρόνου) 더 이상 율법 아래에(ὑπὸ νόμον) 있지 않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 이와 같이, 갈 4:1-5는 평행구조를 통하여 두 개의 시대를 이야기한다. 율법 아래에 있는 시대는 종과 같은 때이나 아들의 명분을 얻는 시대는 유업을 이을 수 있고 속량받는 시대이다. 이와 같은 평행구조

19) S. E. Porter, *Idioms of the Greek New Testament*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1995), 151; D. L. Mathewson and E. B. Emig, *Intermediate Greek Grammar: Syntax for Students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2016), 99.

20) De Boer, *Galatians*, 238.

로 두 개의 시대를 설명한 후 바울은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οὐκέτι εἰ δοῦλος ἀλλὰ υἱός)이라고 말한다(갈 4:6-7).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시작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더 이상 이전 세대로 묘사되는 종의 시대에 머물지 않는다.

전에는(τότε)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이제는(νῦν)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을 아시기 때문에 다시 이전 세대로 돌아갈 수 없다(4:8-9). 이와 같이 바울은 위치적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 ὑπό와 시간적 의미를 보이는 부사 ἄχρι, τότε, νῦν, οὐκέτι, ὅτε 그리고 ‘유업’, ‘종’, ‘이들’과 같은 단어를 반복 사용하면서 평행구조를 만들고 있는데, 그 평행구조는 ‘그 때’와 ‘지금’이라는 두 세대의 구분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간의 전환에 그리스도가 중심 축을 담당한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의 충만함이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인간의 위치와 상태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므로 갈 4:1-11을 통하여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믿음과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에 이미 들어갔음을 설명한다.

갈 4:1-2	어린 시절	아버지의 때
	-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음 - 종과 다를 바가 없음	유업을 이을 수 있음
갈 4:3-7	그리스도 이전 (아이와 같은 시간)	그리스도의 오심 (때가 참)
	-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음 - 종 노릇 함	- 속량 - 아들의 명분을 받음 - 더 이상 종이 아님
갈 4:8-11	그때	지금
	- 하나님을 알지 못함 - 종 노릇 함	- 하나님을 암 하나님이 아심

<표1> 갈라디아서 4:1-11에 나타난 두 시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두 세대를 암시하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마틴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바르게 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두 세대 이론은 유대주의 묵시사상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다. 그럼에도 바울의 시대 이해는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조명하는 유대주의 묵시사상과는 차별성을 보인다. 또한, 악한 세대가 먼저 종결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며 의인이 보상을 받고 악인은 책망을 받는 두 세대의 불연속성을 드러내지 않는다. 바울이 이해하는 시대의 전환은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에 이미 일어났다. 과거 율법의 종 되었던 시대에서 현재 그리스도로 인하여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상태로의 전환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유대주의 묵시적 종말론이 미래적 소망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바울은 과거로부터 현재로의 전환 그리고 현재적 상태에 집중한다.

2.2. 상반된 상태의 대조: 율법-종과 언약-자유

앞서 언급한 시대의 전환 외에도 마틴은 갈 4:3의 ‘스토이케이온’(στοιχείον, 갈 4:3에서 초등학문으로 번역됨)이라는 단어에 주목한다. 유대주의 문헌(지혜서, 시락서, 필로)의 연구를 통해 마틴은 ‘스토이케이온’이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바울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독특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마틴은 바울이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대조적인 개념(물 vs. 불, 공기 vs. 땅)을 두 개의 대조적인 시대와 지배체제인 할례-종과 무할례-자유를 대조하는데 사용한다고 해석한다.²¹⁾ 마틴에 의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각각 자신의 가지고 있던 지배체제가 있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지배체제로 옮겨지게 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틴은 두 가지 설명을 제시한다. 첫째, 마틴은 시락서 11:14; 33:14-15; 42:24-25; 43:24-25에서 ‘스토이케이온’이라는

21) Martyn, *Galatians*, 393-94; Martyn, “Apocalyptic Antinomies,” 403-5.

단어가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서로 대립되는 것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제시한다.²²⁾ 둘째, 마틴은 갈라디아서 4장에 나타난 두 개의 예루살렘 비유를 통해 보충설명한다. 특히 이곳에서 나타나는 이분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리를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마틴은 “바울이 주장하는 십자가에 못박힌 세상은 유대인과 이방인,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율법과 율법이 아닌 것 사이를 구분하는 세상”²³⁾ 이라고 설명한다.

마틴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박이 가능하다. 먼저 시락서에는 두 세대 이론이나 대조되는 두 개의 지배체계를 지지할 만한 구절이 등장하지 않는다. 세대(age)를 의미하는 헬라어 ‘아이온’(αἰών)이 시락서에 48번 등장하지만,²⁴⁾ 그 단어는 이 세대와 오는 세대의 구분을 이야기 하기 보다는 영원성 혹은 태초의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시락서 42:18-19의 ‘아이온’만이 여러 세대를 지칭하고 있는 유일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해당 구절의 문맥은 그 세대가 지나간 것들과 앞으로 올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모든 세대를 알고 모든 감추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높으신 분의 속성을 나타낸다. 이 구절 외에 시락서의 ‘아이온’이 유대주의적 종말론을 보이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또 대립되는 우주와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이와 더불어 필자는 마틴이 제안한 두 개의 시대와 두 개의 지배체계의 대조가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바울이 사용하는 반복적 대조리는 언어적 특징의 분석을 통해 설명한다. 첫째, 바울은 율법의 일과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대조한다.

22) Martyn, *Galatians*, 402.

23) Martyn, *Galatians*, 406.

24) 시락서 1:1, 2, 4, 15; 2:9; 7:36; 11:17, 33; 12:10; 14:17; 15:6; 16:27, 28; 17:12; 18:1, 10; 24:9 (x2), 33; 30:17; 36:17; 37:26; 38:34; 39:9; 39:20 (x2); 40:12, 17; 41:13; 42:18; 42:21 (x2), 23; 43:6; 44:2; 44:13, 18; 45:7, 13, 15, 24; 46:19; 47:11, 13; 48:25; 49:12; 50:23; 51:8

갈라디아서 2:16

εἰδότες [δὲ]

ὅτι οὐ δικαιούται ἄνθρωπος ἐξ ἔργων νόμου ἐὰν μὴ διὰ πίστεω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καὶ ἡμεῖς εἰς Χριστὸν Ἰησοῦν ἐπιστεύσαμεν,

ἵνα δικαιωθῶμεν ἐκ πίστεως Χριστοῦ καὶ οὐκ ἐξ ἔργων νόμου,

ὅτι ἐξ ἔργων νόμου οὐ δικαιωθήσεται πᾶσα σὰρξ.

우리가 아는 것은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인 줄 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율법을 행함으로 되지 않으려 함이다. 왜냐하면
율법을 행함으로는 모든 육체가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²⁵⁾

위 구문 분석에서 보듯이, ‘율법을 행함’과 ‘예수를 믿음’은 동사 ‘δικαιο-
오’(δικαίωω) 뒤에서 동일한 조사 ἐκ와 함께 쓰이며 부가어 위치에서 의롭게
되는 수단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바울은 동일하게 믿음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율법의 행위를 언급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며,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음이지 행위가
아니다. ‘율법을 행함’과 ‘믿음’은 각각 ‘사람’ ‘우리’ 그리고 ‘모든 육체’와
함께 ‘의롭게 하다’라는 동사를 통하여 의미적 연결을 형성한다.

문장1.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으며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문장2. 우리가 의롭게 함을 얻은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이지 율법을 행함이 아니다.

문장3.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 인하여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반복되는 의미적 연결을 통해서 바울이 드러내고 있는
대조는 율법을 행함과 믿음이다.²⁶⁾

두 번째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 모티프가 등장하는 갈 4:21-31은 여러가
지 대조적인 개념이 의미적 연결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조를

25) 헬라어 번역은 저자의 것이다.

26) David I. Yoon, *A Discourse Analysis of Galatians and the New Perspective on Paul*. LBS 17 (Leiden: Brill, 2019), 223.

이루고 있는 항목들은 종 vs. 자유인, 종의 아들 vs. 자유인의 아들, 현재 예루살렘 vs.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육체 vs. 약속, 육체 vs. 영과 같은 항목들이다. 바울은 두 아들을 대조적 관계로 설정한다. 한 아들은 육체를 따라 종의 여자에게서 낳고 그리고 다른 아들은 약속을 따라 자유의 여자에게서 낳았다 (갈 4:22-23). 더욱이 아브라함의 두 자녀 뿐 아니라 두 여인도 대조적이다. 종의 자녀를 낳은 종의 여인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며, 자유있는 여인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한다. 그리고 바울은 자유있는 여인을 우리의 어머니라고 표현한다.

두 아들	
아들 1	아들 2
- 종의 여인에게서 - 육체를 따라	- 자유의 여인에게서 - 약속을 따라
두 언약	
하갈	사라
- 시내산 - 종의 자녀를 낳음 - 지금 예루살렘 - 육체	- 자유의 여인 - 약속의 자녀를 낳음 - 위에 있는 예루살렘 - 성령

<표2> 두 여인과 두 아들의 대조

이와 같은 대조를 통하여 바울은 두 개의 언약을 대조한다. 하나는 모세의 언약이며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의 언약이다. 놀랍게도 바리새파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모세의 언약과 그 언약의 후손을 종의 신분으로 묘사하고 있다. 바울에게는 율법에 머물러 있는 자는 곧 종의 신분을 가진 것과 다를 바 없다.²⁷⁾ 그리고 종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는 결코 자유인의 아들과 유업을 함께 나눌 수 없다고 설명한다(4:30).

27) 이와 같은 점에서,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된 적이 없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부하던 유대인들을 도리어 종의 상태로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영미, “바울의 구약전승의 알레고리화 (allegorization)와 상황적 적용: 갈라디아서 4:21-31을 중심으로,” 『Canon&Culture』 8/2 (2014), 122.

이 두 가지 언약의 대조는 바울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파한 자들 사이의 차이를 부각시킨다.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와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파한 자들은 유대인들의 전통인 할례와 절기를 강조하였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혼잡하게 하고 있으며(*ταράσσω*), 그들의 목적은 복음을 왜곡하기(*μεταστρέφω*) 위함 이라고 비판한다. 그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진리를 따르는 것을 방해한다.²⁸⁾ 바울은 ‘진리’라는 단어를 그의 대적자들과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하는 문맥에서 사용한다(갈 2:5, 14; 5:7). 즉, 바울에게 유대주의적 관습을 강요하는 그들의 가르침은 진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상응할 수 없는 것이다.²⁹⁾

바울이 반복해서 사용하는 대조적 언어는 마틴이 이해하는 것처럼 종과 자유라는 두 개의 체계의 대조 뿐만 아니라, 두 개의 상이한 복음(바울의 복음과 바울의 대적자들의 복음)을 나타낸다.³⁰⁾ 바울의 담화 안에 등장하는 바울 자신, 갈라디아 성도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까지도 모두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들이다. 바울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민족적인 구분이 아니라 두 종류의 복음이다. 바울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율법을 지키기를 종용하는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은 율법의 의무를 따르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한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역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동의한다. 하지만 그들은 모세의 법을 따르는 것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언약에 동참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판단한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에 들어온다는 것은 유대주의에 동의하고 그 공동체의 일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포함되는 복음이다. 거기에는 날과 절기를 지킬 의무는 없으며 민족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28) A. A. Das, *Paul and the Jews*, LPS (Peabody: Hendrickson, 2003), 18-19.

29) J. M. G. Barclay, *Obedying the Truth: Paul's Ethics in Galatians*, *Studies of the New Testament and its World* (Edinburgh: T&T Clark, 1988), 54-60.

30)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시대에 두 가지 다른 형태의 이방인 선교가 대립하고 있었다는 마틴의 주장은 바른 판단이라 할 수 있다. Martyn, “Covenants of Hagar and Sarah,” 191-208.

할례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바울 자신이 바리새와 유대인이었음에도 이방인들에게 할례의 의무를 강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할례와 율법을 종의 상태로 묘사하는 것이다. 믿음과 약속을 통해 참 자유가 주어진 이방인들이 율법의 종된 신분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바울에 따르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도래한 새로운 시대에 이방인의 어깨에 유대인의 짐을 지울 이유가 없다.

2.3. 그리스도의 묵사: 이방인을 포함하는 새로운 시대

마틴은 바울이 이해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에 침투하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한 것이며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하여 계획하신 새로운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언약과 구별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마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개입을 이스라엘의 역사와의 연속성에서 설명하지 않는다.³¹⁾ 마틴은 유대주의 종말론과 유사한 개념으로 새로운 시대의 도래가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짐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것이 새언약의 성취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옛언약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은 제공하지 않는다.

마틴이 이해하는 바울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언약, 율법, 선지자의 새언약 사이에는 불연속성이 존재한다. 마틴의 주장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언약은 율법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떠난 후 선지자가 선포한 새언약에서 다시 연결되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에게 성취되는 것으로 결론지어진다.³²⁾ 바울이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 교회를 지칭하는 이름이 된 것이다.³³⁾ 그렇기에 마틴은 바울이 주장하는 새로운 시대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이방인들을 포함한 시대이지만 반드시 이스라엘과 연결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한다.

31) Hays, "Apocalyptic Poiēsis in Galatians," 204.

32) Martyn, *Galatians*, 349-52.

33) Martyn, *Galatians*, 306.

이와 같은 주장은 마틴의 해석 중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부분이다. 키너(C. S. Keener)는 하갈과 사라의 알레고리를 이사야 54장의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회복하는 메시아적 인물로 이해한다.³⁴⁾ 이같은 이해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스라엘의 언약으로부터 단절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속성을 가지며 이스라엘의 언약이 역사를 통하여 성취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헤이스(R. Hays) 역시 마틴의 구속사 이해에 대하여 비판하며 바울이 설명하는 이방인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언약과 역사 안에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³⁵⁾ 버드(M. F. Bird) 또한 마틴의 해석에 반론을 제기한다. 버드에 의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묵시적 종말과 이스라엘의 구속사는 분리될 수 없다. 버드는 유대주의 묵시문헌에서 이방인의 회개와 구원이 언급될 때 항상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 나타나듯이, 바울의 묵시적 종말론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한다.³⁶⁾

이와 같은 비판은 매우 적실하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과 별개의 사건이라고 설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갈라디아 공동체에 들어와 다른 복음을 전파한 자들은 모세의 율법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연속성을 주장하는 자들이다.³⁷⁾ 그들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후(창 12, 15) 할례를 받았다(창 17).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동참한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믿었을 것이다.³⁸⁾ 하지만 바울은 그와 같은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바울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며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요구되는 할례 및 다른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바울은

34) Keener, *Galatians*, 426-29.

35) Hays, "Apocalyptic Poiësis in Galatians," 204.

36) Bird, *Anomalous Jew*, 121-23.

37) 제2성전기 유대문헌을 보면 아브라함을 율법을 준수하는 자로 묘사한다. 시락서 44:20; 주빌리서 23:10; 24:11; 마카비1서 2:52; 바룩2서 57:1-2를 보라.

38) Martyn, *Galatians*, 303.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 그가 가진 믿음으로 언약을 받은 사건에 집중하며, 이방인 역시 믿음으로 언약에 동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³⁹⁾ 이것이 바울의 묵시적 복음의 핵심이다.

바울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율법과 아브라함의 언약 사이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반면, 바울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더 강조한다.⁴⁰⁾ 바울은 이방인이 유대인의 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언약에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이방인들은 태생적으로 유대인은 아니며 그들이 아브라함 언약의 일차적 수여자는 아니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된 새로운 시대에는 믿음을 통하여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⁴¹⁾ 그렇기에 바울에게 율법준수의 의무는 이방인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들어주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

물론 바울은 율법을 폐기해야 할 가치 없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바울은 여전히 율법이 거룩하며 하나님의 언약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3:21). 더욱이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생득적인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유대인의 특별한 위치를 인정한다(2:15). 다만 바울이 주장하는 바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율법이 이방인들을 아브라함의 언약에 포함하는 것에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⁴²⁾ 이같은 관점은 제2성전기 유대문헌과는 다른 관점이다. 유대문헌과 구약 선지자 전통에 따르면(토비트서 14:5-7; 스가랴 8:20-23; 이사야 56:6-8; 시빌라의 신탁 3:710-29)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율법에 대하여 신실하며 의로운 자들은 영원하고 영광스

39) 아브라함과 유대인, 이방인, 언약의 관계에 관한 국내 논문은 서동수, “인류통합의 원형으로서 아브라함의 신탁적 의미: 갈라디아서 3:14의 다민족, 다문화의 맥락,” 「신약논단」 26/1 (2019), 177-214를 참고하라.

40) Bird, *Anomalous Jew*, 113.

41) P. la G. Du Toit, “Galatians 3 and the Redefinition of the Criteria of Covenant Membership in the New Faith-Era in Christ,” *Neotestamentica* 52/1 (2018), 51-52.

42) 이진섭, “바울과 율법: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바울의 율법 이해,” 「Canon&Culture」 5/2 (2011), 9; 15-16.

러운 의로운 공동체에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그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먼저 일어나고 그후 이방인들 중 유일하신 하나님께 돌아와 율법을 준수하는 자들은 회복될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⁴³⁾ 바울과 다른 복음을 전하던 자들은 이와 같은 제2성전기 묵시문헌의 관점으로 이방인들이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이해했을 것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율법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바울의 주장은 구약과 제2성전기 유대문헌보다 더 급진적이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민족성을 가지거나, 사회/문화적 유산을 답습할 필요가 없으며 유대인들이 준수하는 할례와 절기 그리고 정결법과 같은 율법의 행위에 동참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처럼 살지 않더라도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언약에 들어갈 수 있다.⁴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인해 새롭게 시작된 새로운 시대에 관한 바울의 묵시의 핵심이다.⁴⁵⁾ 이와 같은 관점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유대인으로 만들려는 모든 시도를 비판한다.

바울은 강한 어조로 이야기한다. 갈라디아서 1:7-9와 5:10은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데 두 구절 모두에서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주격 분사 *ὁ παράσσω*를 사용하여 ‘혼잡하게 하는 자’라고 지칭한다. 또한 갈 1:7, 9; 5:10에 나타나는 대명사 ‘누군가(τις)’는 ‘혼잡하게 하는 자’와 의미적 연결을 나타낸다.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언하듯이 (1:8-9)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언한다

43) T. L. Donaldson, “The ‘Curse of the Law’ and the Inclusion of the Gentiles: Galatians 3:13-14,” *NTS* 32/1 (1986), 94-112; N. T. Wright, *Paul and the Faithfulness of God* (Minneapolis: Fortress, 2013), 2:863-265; R. N. Longenecker, *Galatians* (Nashville: Thomas Nelson, 2003), 229; Martyn, “Law-Observant Mission,” 358-361; Das, *Paul and the Jews*, 22-23.

44) Keener, *Galatians*, 319.

45) A. A. Das, *Paul and the Stories of Israel: Grand Thematic Narratives in Galatians* (Minneapolis: Fortress, 2016), 37-63; Du Toit, “Galatians 3 and the Redefinition,” 53.

(5:10). 갈라디아서 5:12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로우-나이다의 의미영역(semantic domain) 분류에 따르면 갈 5:12의 주격 분사 *οἱ ἀνασπατοῦντες*(어지럽게 하는 자들)와 *ὁ ταρασσων*(혼잡하게 하는 자)는 같은 의미군에 포함되어 있다.⁴⁶⁾ 따라서 갈 1:7, 9; 5:10, 12에 등장하는 ‘누군가,’ ‘혼잡하게 하는 자,’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모두 동일한 인물을 지칭한다. 바울은 그들이 진리의 복음을 왜곡하며 갈라디아 성도들을 혼란에 빠트렸다고 평가한다.⁴⁷⁾

더 나아가 바울은 ‘자르다’에 해당하는 ‘아포코프토’(*ἀποκόπτω*) 동사를 통해 할례의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칠십인경에서 동사 ‘아포코프토’의 용례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잘라내는 행위만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회에서 끊어짐을 나타낸다(LXX 신 23:2, 시 76:9).⁴⁸⁾ 그렇다면 바울은 ‘아포코프토’(*ἀποκόπτω*)라는 동사를 통해 포괴를 잘라내는 행위를 반향 하면서 할례를 강요하는 자들을 공동체에서 잘라낼 것을 권면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5:12).⁴⁹⁾ 즉, 바울은 “할례를 이유로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은 너희가 스스로 할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바울은 유대인들과 율법 자체에 적개심을 드러내거나 부정적인 진술을

46) 동사 *ταράσσω*와 *ἀνασπατῶν*는 Hostility and Strife (LN 39)의 의미군에 포함되어 있다. J. P. Louw and Eugene A. Nid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s*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89), 1:498.

47) 권연경에 따르면 이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대적자들은 율법 전체를 지키는 삶을 살지 않았고 이방인들에게도 율법 전체를 지키라는 가르침을 주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권연경에 의하면 그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혼잡하게 한 것은 율법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은 주지 않은 채 할례리는 특정 규율만 강요하여 그리스도 십자가를 위한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권연경, “갈라디아의 선동자들은 율법 준수를 요구하였는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56 (2008), 59-85.

48) T. Muraoka,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Septuagint* (Louvain: Peeters, 2009), 76.

49) K. Ehrensperger, “Trouble in Galatia: What Should Be Cut? (on Gal 5:12),” *The Message of Paul the Apostle within Second Temple Judaism*, F. Ábel ed. (Lanham: Lexington Books, 2020), 179-94; D. A. DeSilva, *Galatians: A Handbook on the Greek Text*, BHGNT (Waco: Baylor University Press, 2014), 112.

하지 않는다. 바울의 복음과 할레자를 대표하는 베드로의 복음은 같은 복음이다(2:7, 9). 두 진영은 같은 복음을 다른 대상에게 전하였다.⁵⁰⁾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과 율법의 일을 대조하고 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을 대적하는 관계로 설정하지 않는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아브라함의 언약에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바울이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묵시의 복음 안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도래한 새로운 시대에 이방인들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에 들어간다. 그러니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제시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를 권면하는 행위는 새로운 시대와 복음의 계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한 행위인 것이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도래한 새로운 시대에는 할레나 무할레나 효력이 없으며(5:6)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6:15). 이방인은 유대인이 될 필요 없으며 유대인도 이방인이 될 필요가 없다.⁵¹⁾ 이로 보건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제시하는 그리스도의 묵시는 마틴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별개로 역사에 침투한 사건이 아니다. 오히려 바울이 이해하는 그리스도의 묵시는 이방인을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성취이자 구속사의 정점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3. 나가며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은 바리새파 유대인으로 동시대 유대인들과 유사한 신학적 이해를 가졌을 것이다. 바울에게는 오랜 시간동안 변형 발전되어 온

50) Longenecker, *Galatians*, 104.

51) P. Fredriksen, "God Is Jewish, but Gentiles Don't Have to Be: Ethnicity and Eschatology in Paul's Gospel," *The Message of Paul the Apostle within Second Temple Judaism*, 3-17; 권연경, "살리는 복음, 살릴 수 없는 율법," 「Canon&Culture」 5/2 (2011), 45-80.

유대주의의 신학적, 문화적, 사회적, 민족적, 역사적인 ‘터와 무늬’가 남아 있었을 것이다.⁵²⁾ 그리고 시대를 인식하는 방식과 감추인 비밀에 대한 이해도 역시 유대주의적 흔적이 남아있었을 것이다. 마틴을 비롯하여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은 바울의 유대주의적 토양에 관심을 보이며 갈라디아서의 묵시사상을 연구해왔다. 필자 역시 바울의 유대주의적 배경과 흔적이 단번에 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는 사건은 바울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신학적 이해에 혁명적 변화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경험이었을 것이다. 갈라디아서에 나타나는 바울의 묵시사상과 유대주의의 묵시사상 사이의 유사성과 차별성이 그와 같은 변화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본 논문은 마틴의 주장에 대한 도전과 함께 갈라디아서가 드러내고 있는 의미론적 관계패턴을 통하여 새로운 관점을 제안하였다.

첫째,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시대의 전환을 나타내는 언어적 기법을 반복하며 그리스도를 그 모든 시간의 전환에 중심축으로 등장시킨다. 즉, 메시아의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유대주의적 이해가 바울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된 새로운 시대로 표현된다. 더 중요한 사실은 바울의 시간의 전환은 유대주의 종말론이 나타내는 이 세대와 오는 세대 즉 현재로부터 미래를 향한 시간의 전환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현재의 시간의 전환을 반복적으로 드러낸다. 둘째,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 할례와 유대교 전통에 대한 답으로 이와 같은 설명을 제공한다. 두 개의 다른 시대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그 시대의 구분은 할례와 믿음의 대조로 설명되며 하갈-시내산-율법을 따르는 종의 지위와 사라-언약-성령으로 연결되는 자유자의 지위의 대조로 드러난다.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오심이 있다. 셋째, 하지만 바울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이방인이 포함된다는 설명을 통하여 두 시대의 단절이나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관점에서 시대의 전환을 제안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다시 그리스도가 있다. 이로 보건대, 갈라디아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바울의 묵시

52) ‘터와 무늬’라는 용어는 박정수의 『고대 유대교의 터·무늬』에서 빌려왔다.

사상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나타나신 뒤 바울은 유대주의의 터와 무늬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시대의 구분과 종말론적 관점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생각, 율법에 대한 이해의 재조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주요어>

루이스 마틴, 묵시적 바울, 유대주의 묵시사상, 묵시문헌, 구속사

<Keywords>

J. Louis Martyn, The Apocalyptic Paul, Jewish Apocalyptic Eschatology, Apocalypses, Salvation History

* 접수일 2024년 1월 12일, 수정일 2024년 3월 14일, 게재 확정일 2024년 3월 20일

참고문헌

- 권연경, “갈라디아의 선동자들은 율법 준수를 요구하였는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56 (2008), 59-85.
- 권연경, “살리는 복음, 살릴 수 없는 율법,” 「Canon&Culture」 5/2 (2011), 45-80.
- 박정수, 『고대 유대교의 터.무늬: 신구약 중간사와 기독교의 기원 탐구』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 서동수, “인류통합의 원형으로서 아브라함의 신학적 의미: 갈라디아서 3:14의 다민족, 다문화의 맥락,” 「신약논단」 26/1 (2019), 177-214.
- 이영미, “바울의 구약전승의 알레고리화(allegorization)와 상황적 적용: 갈라디아서 4:21-31을 중심으로,” 「Canon&Culture」 8/2 (2014), 105-134.
- 이진섭, “바울과 율법: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바울의 율법 이해,” 「Canon&Culture」 5/2 (2011), 5-45.
- 앨버트 슈바이처, 『사도바울의 신비주의』, 조남홍 역, 서울: 한들, 2012.
- Barclay, John M. G., *Obeying the Truth: Paul's Ethics in Galatians*, Studies of the New Testament and its World, Edinburgh: T&T Clark, 1988.
- Beker, Johan Christiaan, *Paul's Apocalyptic Gospel: The Coming Triumph of God*, Philadelphia, PA: Fortress, 1982.
- Bird, Michael F., *An Anomalous Jew: Paul Among Jews, Greeks, and Romans*, Grand Rapids: Eerdmans, 2016.
- Bruce, F. F.,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Grand Rapids: Eerdmans, 1982.
- Campbell, Douglas A., *The Deliverance of God: An Apocalyptic Rereading of Justification in Paul*, Grand Rapids: Eerdmans, 2009.
- Collins, John J., *The Apocalyptic Imagination: An Introduction to Jewish Apocalyptic Literature*, 2nd ed., Grand Rapids: Eerdmans, 1998.
- Collins, John J., “Cosmos and Salvation: Jewish Wisdom and Apocalyptic in the Hellenistic Age,” *History of Religions* 17/2 (1997), 121-42.

- Ehrensperger, Kathy, “Trouble in Galatia: What Should Be Cut? (on Gal 5:12),” *The Message of Paul the Apostle within Second Temple Judaism*, ed. František Ábel, Lanham: Lexington Books, 2020, 179-94.
- Eisenbaum, Pamela. *Paul Was Not a Christian: The Original Message of a Misunderstood Apostle*, New York: HarperOne, 2009.
- Das, A. Andrew., *Paul and the Jews*, LPS, Peabody: Hendrickson, 2003.
- , *Paul and the Stories of Israel: Grand Thematic Narratives in Galatians*, Minneapolis: Fortress, 2016.
- Davies, J. P., *Paul Among the Apocalypses? An Evaluation of the “Apocalyptic Paul” in the Context of Jewish and Christian Apocalyptic Literature*, LNTS 562, London: T&T Clark, 2016.
- De Boer, Martinus C., *The Defeat of Death: Apocalyptic Eschatology in 1 Corinthians 15 and Romans 5*, JSNTSup 22, Sheffield: JSOT, 1988.
- , *Galatians: A Comment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11.
- DeSilva, David A., *Galatians: A Handbook on the Greek Text*, BHGNT, Waco: Baylor University Press, 2014.
- Despotis, Athanasios, “Reconsidering the Pauline Conception of Time,” *JSPL* 8/1 (2018), 20-42.
- Donaldson, Terence L., “The ‘Curse of the Law’ and the Inclusion of the Gentiles: Galatians 3:13-14,” *NTS* 32/1 (1986), 94-112.
- Du Toit, Philip la G., “Galatians 3 and the Redefinition of the Criteria of Covenant Membership in the New Faith-Era in Christ,” *Neotestamentica* 52/1 (2018), 51-52.
- Ferch, Arthur J., “The Two Aeons and the Messiah in Pseudo-Philo, 4 Ezra, and 2 Baruch,” *Andrews University Seminary Studies* 15/2 (1977), 135-151.

- Fredriksen, Paula, "God Is Jewish, but Gentiles Don't Have to Be: Ethnicity and Eschatology in Paul's Gospel," *The Message of Paul the Apostle within Second Temple Judaism*, ed. František Ábel, Lanham: Lexington Books, 2020, 3-20.
- Fredriksen, Paula, "Judaizing the Nations: The Ritual Demands of Paul's Gospel," *NTS* 56 (2010), 232-252.
- Gaventa, Beverly R., "The Singularity of the Gospel: A Reading of Galatians," *Pauline Theology*, ed. M. Bassler Jouette, Minneapolis: Fortress, 1991, 147-159.
- Gaventa, Beverly R., "The Maternity of Paul: An Exegetical Study of Galatians 4:19," *Conversation Continues: Studies in Paul and John in Honor of J. Louis Martyn*, eds. Robert T. Fortna and Beverly R. Gaventa, Nashville: Abingdon, 1990, 189-201.
- Gorman, Michael J., "The Apocalyptic New Covenant and the Shape of Life in the Spirit according to Galatians," *Paul and the Apocalyptic Imagination*, eds. C. Blackwell Ben, K. Goodrich John, and Maston Jason, Minneapolis: Fortress, 2016, 317-337.
- Hanson, Paul D., *The Dawn of Apocalyptic: The Historical and Sociological Roots of Jewish Apocalyptic Eschatology*, Philadelphia: Fortress, 1979.
- Hays, Richard, "Apocalyptic Poiësis in Galatians: paternity, passion, and participation," *Galatians and Christian Theology: Justification, the Gospel, and Ethics in Paul's Letter*, eds. W. Elliott Mark et al., Grand Rapids: Baker, 2014, 200-19.
- Hogeterp, Albert L. A., *Expectations of the End: A Comparative Tradition-Historical Study of Eschatological, Apocalyptic and Messianic Ideas in the Dead Sea Scrolls and the New Testament*, STDJ 83, Leiden: Brill, 2009.
- Jamie, Davies, *The Apocalyptic Paul: Retrospect and Prospect*, Eugene: Cascade Books, 2022.
- Keener, Craig S., *Galatians: A Commentary*, Grand Rapids: Baker, 2019.

- Kwon, Yon-Gyong, *Eschatology in Galatians: Rethinking Paul's Response to the Crisis in Galatia*, WUNT 183, Tübingen: Mohr Siebeck, 2004.
- Longenecker, Richard N., *Galatians*, Nashville: Thomas Nelson, 2003.
- Macaskill, Grant, *Revealed Wisdom and Inaugurated Eschatology in Ancient Judaism and Early Christianity*, JSJSup 115, Leiden: Brill, 2007.
- Martyn, J. Louis, "Apocalyptic Antinomies in Paul's Letter to the Galatians," *NTS* 31/3 (1985), 410-424.
- Martyn, J. Louis, "The Covenants of Hagar and Sarah: Two Covenants and Two Gentile Missions," *Theological Issues in the Letters of Paul*. Nashville: Abingdon, 1997, 191-208.
- Martyn, J. Louis, *Galatian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New York: Doubleday, 1997.
- Martyn, J. Louis, "A Law-Observant Mission to Gentiles," *The Galatians Debate*, ed. Mark D. Nanos, Peabody: Hendrickson, 2002, 348-361.
- Mathewson, David L., and Elodie Ballantine Emig, *Intermediate Greek Grammar: Syntax for Students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2016.
- Moo, Douglas J., *Galatians*, Grand Rapids: Baker, 2013.
- Muraoka, T.,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Septuagint*, Louvain: Peeters, 2009.
- Porter, Stanley E., *Idioms of the Greek New Testament*,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1995.
- Rowland, Christopher, *The Open Heaven: A Study of Apocalyptic in Judaism and Early Christianity*, London: SPCK, 1982.
- Russell, D. S., *The Method and Message of Jewish Apocalyptic, 200 BC-AD 100*, London: SCM, 1964.
- Schweitzer, Albert. *Die Mystik des Apostels Paulus*, Tübingen: J.C.B. Mohr, 1930.

- Schweitzer, Albert, *The Mysticism of Paul the Apostle*,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8.
- Stuckenbruck, Loren T., "Overlapping Ages at Qumran and Apocalyptic in Pauline Theology," *The Dead Sea Scrolls and Pauline Literature*, ed. Jean-Sébastien Rey, STDJ 102, Leiden: Brill, 2014, 390-26.
- Stuckenbruck, Loren T., "Posturing Apocalyptic in Pauline Theology: How Much Contrast with Jewish Tradition?" *The Myth of Rebellious Angels: Studies in Second Temple Judaism and New Testament Texts*, ed. Loren T. Stuckenbruck, WUNT 335, Tübingen: Mohr Siebeck, 2014, 240-256.
- Thiessen, Matthew, *A Jewish Paul: The Messiah's Herald to the Gentiels*, Grand Rapids: Beker, 2023.
- Vielhauer, J. Philipp, "Apocalyptic in Early Christianity," *Writings Relating to the Apostle; Apocalypses and Related Subjects*, vol. 2 of *New Testament Apocrypha*, ed. Wilhelm Schneemelcher,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1991, 569-638.
- Vielhauer, J. Philipp, "Introduction to Apocalypse and Related Subject," *New Testament Apocrypha*, trans. R. McL. Wilson, ed. Schneemelcher Wilhelm,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1991, 542-68.
- Wasserman, Emma, *Apocalypse as Holy War: Divine Politics and Polemics in the Letters of Paul*,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8.
- Wright, N. T., *Paul and the Faithfulness of God*, Minneapolis: Fortress, 2013.

<초록>

갈라디아서에 드러난 바울의 묵시적 복음

-J. 루이스 마틴의 주장에 대한 재고찰-

김두석

(광신대학교 조교수, 신약학)

본 논문은 루이스 마틴(J. Louis Martyn)의 묵시적 바울 연구에 대한 재고찰과 함께 갈라디아서에 나타나는 바울의 묵시적 복음을 언어적 특징과 의미론적 패턴(semantic patterns)분석을 통하여 제안한다. 먼저, 마틴은 갈라디아서의 묵시적 종말론을 유대주의 묵시사상의 틀을 통해 해석한다. 그러나 본고는 갈라디아서는 유대주의 묵시문학과 다르게 현시대와 미래시대의 단절이나 미래적 소망이 강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은 새로운 시대가 현 시대에 펼쳐지고 있는 시대의 전환 사건이라 주장한다. 또한 마틴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현현을 이스라엘의 구속사와 별개로 인류 역사에 침투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판단한다. 이에 반해, 본 논문은 그리스도로 인해 도래한 새로운 시대는 이스라엘과 상관 없는 갑작스러운 침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특별한 길(*Sonderweg*)을 제안하거나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각기 다른 구원의 길(*two covenants*)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스라엘의 역사와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의 성취라는 새로운 국면을 시작한 계시(묵시)라고 주장한다.

<Abstract>

Paul's Apocalyptic Gospel in Galatians: With a Response to J. Louis Martyn

Asst. Prof. Doosuk Kim
(Kwangshin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provide a critical evaluation of J. Louis Martyn's assertion regarding the apocalyptic Paul and to suggest Paul's apocalyptic Gospel in Galatians by investigating linguistic features and semantic patterns. Martyn understands Paul's apocalyptic gospel within the frame of the Jewish apocalyptic eschatology. The current article, however, suggests that even if we may find the Jewish cultural and religious traces in Galatians, the apostle does not present a stark division between this age(the present) and the age to come(the future), nor does he exhibit a futuristic view of the new era. For Paul, the advent of Christ brought the new age into this age. In this regard, the coming of Christ is the turning point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rather than from the present(this age) to the future(the age to come), as presented in the Jewish apocalyptic eschatology. In addition, Martyn views the coming of Christ as an abrupt invasion of God's time, not necessarily in a continuation of Israel's salvation history. In contrast, this article maintains that the epochal turning point through Christ should be understood as the fulfillment of God's covenant with Abraham. To paraphrase, Christ's epiphany is not the invasion but the continuation and accomplishment of the salvation history of Israel. Paul does not unfold Sonderweg for the Gentile or propose two different covenants to Jews and Gentiles. For Paul, the coming of Christ has continuity with Israel's history, and it is apocalyptic that God inaugurates a new phase of covenant and fulfillment of salvation.